

머리를 써서 상식적으로 살아야 한다: 언행의 품위 유지

성경: 벰전1:13

대학에서 학생들 강의, 처음에는 주로 2학년, 공부할 생각을 안 한다. 어떻게 살지 전혀 생각을 안 한다.

특히 머리에 염색, 귀걸이, 머리의 용도에 대해 이야기한다.

머리의 용도: 생각하는 것

학생들만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니다.

사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을 차리고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

왜? 진리의 영께서 내주하시므로

진리는 비진리를 판단하고 축출한다.

우주 공간에서 가장 질서 있고 논리 정연하고 상식적인 분: 하나님

그런데 교회에 가 보면 바보들만 있는 것 같다. 교회가 가장 비상식적, 질서 없음

고전14:33,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요, 화평의 창시자시니라.

14:40,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할지니라.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언행, 혹은 그리스도인의 언행은 가장 합리적, 상식적, 참된 것이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의무:

롬12:2,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검증하도록 하라.

세상에 동화되지 않으려면 생각해야 한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sober, 12번, 술 취하지 않는다. 맑은 정신, 정신을 차리라는 의미이다.

벰전1:13,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오실 은혜를 끝까지 바라지어다.

4:7, 그러나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5:8-9,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그리스도인은 정신을 차리고 사는 사람들

물에 술탄 듯, 술에 물탄 듯 흐리멍덩한 사람들이 아니다. 질서 정연, 논리적, 이성적, 합리적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에만 오면 사람들이 어리석게 된다.

왜? 교회와 교회 문화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므로

< >

지난주, 영혼의 자유 설명, 특히 영혼의 자유 문제로 스스로를 파멸로 이끄는 분들이 있다.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치: 영혼의 자유, 그러나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오늘 우리는 영혼이 자유를 누리면서도 우리가 지켜야 할 예의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 언행이 대단히 중요하다. 언행으로 인해 교회가 파탄에 빠지기도 한다.

사랑침례교회에서의 생존전략

<https://cbck.org/PastorColumn/View/1bV>, 2015년 1월 10일

안녕하세요?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들의 수가 늘어나다 보니 목사의 손길이 닿지 않는 영역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교회 역시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기존 교회의 어려움과 혼선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행착오를 반면교사로 삼아 바른 신약 교회를 하기 위해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회피하거나 덮지 말고 바르게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가장 나쁘고 위험한 것 중의 하나는 쓸데없이 남을 비방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 경우 후에 비방이 진실이 아님이 드러나도 비방의 대상은 결국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는 사실이 아닌 성급한 언론보도로 인해 큰 고통을 당하는 유명인들의 사례에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상대방과의 개인적인 관계에 따라 말과 의견을 이리저리 바꾸며 자신의 확실한 입장을 표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의 핵심은 놓치고 사람 눈치만 보게 되며 혼란만 가중되어 성경의 기준으로 따를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 개인적인 인간관계를 초월해서 성경의 기준에 따라 자신의 태도를 “예”와 “아니오”로 확실히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일 겁니다.

이를 위해 올해는 우리 모두가 무슨 문제든 먼저 주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려고 노력하면 잘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항상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셨을까?' 혹은 '사도 바울이라면 어떻게 말하고 행동했을까?'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고 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이 글을 통해 왜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지 그리고 이 교회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드리려 합니다.

1. 이 교회에 오실 때에는 가장 먼저 과거의 틀을 버리고 이 교회가 추구하는 큰 틀(대의)을 인정하고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비성경적이고 비상식적이면 저나 교회의 집사, 지역 인도자 등에게 언제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저나 제 아내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다 사람이므로 잘못 보고 잘못 행할 수 있습니다.

어느 분이 이런 문제에 대해 글을 보내 주셔서 소개하려 합니다.

-----교회의 문제 -----

진리를 찾고 찾아 우리교회에 와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했던 여러분들이 언젠가부터 보이지 않고 나중에 들으면 다른 교회로 갔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그런 일을 들었을 때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지요.

물론 교통 사정이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못 나오시고 인터넷으로 만족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분들의 마음에 감사하고 있어요.

그러한 이유가 아님에도 진리를 찾아왔다가 다시 떠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못 하는 것이 있으면 고쳐야 하고 부족한 것은 채워야 하니까요.

첫째는 사람 관계에서 실족하는 경우 -‘누구 때문에’

사람은 어디를 가나 죄성이 있기에 근본적으로 모두 다 똑같지요.

KJV 성경을 봐도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라 어디서나 부딪히고 소리가 납니다.

말과 행동에 때문에 알게 모르게 상처를 서로서로 주고받지요.

성도들,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인데

이 세상에 있는 한 완전한 교회는 없지요....

둘째는 ‘자기 틀’을 깨지 못하여 - 예) 호칭 문제

일반 교회에서는 집사, 서리집사, 권사, 장로, 전도사 등의 호칭이 마치 직급처럼 권세를 부리는 도구가 되어 높임과 대우를 받았지요.

나이 드신 권사였던 분이 “헉! 나보고 자매라니!”

마치 강등? 당한 것 같이 느끼고, 무시하는 것처럼 느꼈는지

도저히 적응을 못 해서 몇 달 나오시다 도중하차 해 버린 일도 있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형제와 자매와 모친이라고 말하신 것을 간과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라니! 얼마나 놀라운 감당 못 할 말씀인지!!!

자기 틀의 또 하나는 오랜 교회생활 속에서 체득된 고정 관념이 자기 생각으로 굳어져 있는 경우이지요.

이전 교회의 문제점이 우리 교회에서는 없기에 기쁜 마음으로 나오다가 자기 생각과 부딪히게 되면

거부감이 생기고 동조를 얻지 못하여 도중하차하는 경우지요.

컵을 깨끗하게 비워야 깨끗한 새 물을 담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여 남아 있는 사고들과 뒤섞여

혼란스러워 하는 것 같아요.

셋째는 자기만족을 충족시켜 주지 못한 경우 -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이렇고 저런 일을 했고 내 위치가 이런데.....

주로 자기를 들어내고자 하는 데 안 알아주니까? 도중 하차하는 경우지요.

이리 저리 생각해 봐도 결국은 자기 생각과 다르니까-내 생각만이 옳다고 여기고 본질과 비본질의

문제를 구분하지 못하고 부차적인 것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라고 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단순하게 순종하면 되는데....

성경보다는 교회의 전통=체화된 생각이 척도가 된 경우지요.

“집사세요? 권사세요?” - 평신도?와는 대화할 수 없다는 듯....

“도무지 질서가 없어”

“책임자가 대체 누구야?”

성도들과의 말 한마디에도, 행동 하나에도 유의하고 새로 오신 분들에게 관심을 더 갖고 다가가야 할 것 같아요.

서로 마음을 열어 진실한 교제를 통해서 고정관념을 바꾸도록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는 것은 아주 짝-금-씩이나마 생활양식을 주님 바라는 바로 바꾸어 가기 위한 것이니까요.

진정으로 마음이 원하면 말이지요. 머리가 아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다 투명해지려고 노력합니다.

개개인의 사사로운 생각, 친분 관계 등이 교회의 대의를 그르치지 않게 자신을 잘 살피고 모두 조심합니다.

갈등이 생기는 요인

또한 교회를 하다 보면 사람의 모임인지라 늘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직시해서 그 문제의 근원을 풀어야 합니다. 그래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 명확하게 교회 철학에 맞지 않는 일을 했고 이것을 보고 위험하다고 판단한 어떤 사람이 정확한 사실을 교회에 알렸다고 합시다.

이런 경우라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전달자나 확인자가 문제인가요? 아니면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문제인가요?

대부분의 교회는 사랑을 강조하기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어느 면에서는 약자)을 감싸고 전달자나 확인자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왜 그것을 알렸느냐?”, “왜 그것을 확인하느냐? 그냥 두면 덮어질 텐데.”라고 말하며 오히려 전달자나 확인자에게 책임을 지우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이전에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사실관계가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는 전달자나 확인자가 아니라 문제를 일으킨 분을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그래야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 이 부분에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앞서 이야기 한 '사랑침례교회에서의 생존전략'에서 분명하게 “가장 나쁘고 위험한 것 중의 하나는 쓸데없이 남을 비방하고 다니는 것입니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그냥 덮어두어서는 안 될 정확한 사실을 교회에 알리는 것과 사실이 아닌 일을 왜곡하고 꾸며서 남을 비방할 목적으로 말을 계속 옮기는 것은 분명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자신이 일으킨 문제를 전달한 사람을 탓하거나 쓸데없이 남을 비방하는 일을 계속하는 사람은 모두가 교회의 생존전략에서 한참이나 벗어난 것입니다.

교회가 커지는 가운데 이런 일들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자기 의견을 관철하려는 사람들로 인해 교회가 중구난방이 되거나 불필요한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 일치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교회가 커져도 영적 싸움에서 힘을 쓰지 못하는 허약한 교회로 전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품격: 말씨와 웃차림

1. 복장에 대하여

o 자매들이 조심해야 할 것들

1. 육감적이지 않아야 한다(노출, 꼭 끼는 곳, 앞뒤 좌우).
2. 구두 너무 높지 않고 화려하지 않아야 한다(키를 과도하게 키우는 것은 오히려 열등감의 발로)
3. 우리의 무대는 교회이지 패션쇼 하는 곳이 아니다.
4. 상대방을 초라하거나 작게 만들지 않도록 배려한다.

o 형제들이 조심해야 할 것들

1. 육감적이지 않아야 한다. 2. 딱 달라붙는 바지
3. 양말 없이 구두 신는 것, 4. 남자 머리도 단정: 투블럭

o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화사하지만 사치하지 않는 것

2. 언행에 대하여

1. 일반적인 대화에서 가르치듯 말하지 말 것: 습관적으로 성경의 이야기를 굳이 대입하지 말 것(그러면 꼭 설교를 듣는 입장이 된다)
2.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자문자답하지 말 것(하나님과 대화하듯 생각한 것을 말로 옮기지 말 것)
3. 묻지 않는 말을 설명하지 말 것
4. 반말 No!(만나자마자 본인은 상대방을 친근하게 여기고 반갑다 할지라도, 친해졌다고 해도, 결혼한 사람들끼리 형, 누나, 오빠, 형부 등 No!)
5. 남이 이야기하는 도중에 키워드를 잡아 잘라먹지 말 것
6. 길게 사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 것(특히 몇 십년 전 이야기나 먼 친척 이야기 등)
7. 자기 의견이나 경험은 하나님의 뜻 혹은 교회 목사나 교회로 빚대어 말하지 말 것, “내 생각은 이렇다.”고 말하자.
8. 기득권: “이것이 목사나 사모의 생각이다.” 혹은 “우리 교회의 철학과 문화에 반한다.”라고 말을 돌리지 말 것, 왕년의 교회 경력이나 헛수를 은근히 드러내지 않은 것이 좋다.
9. 상대방이 이해가 안 되고 심지어 비상식적으로 보인다 해도 구원과 연결하여 의심하지 말 것(우리도 허물과 부족이 여전히 존재한다)
10. 목사나 사모에게 대하는 것과 성도들에게 대하는 태도가 같아야 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에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 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검증하도록 하라(롬12:1-2).